

드디어 우승, 슈퍼루키 박성현...미국서도 전성시대 활짝

KLPGA 투어 2년 동안 10승 달성 후 미국 진출
14개 대회 만에 US여자오픈 타이틀로 첫 승 신고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미국 진출 첫해 세계 여자골프 최고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을 제패하며 자신이 왜 '슈퍼루키' 인지를 입증했다.

박성현은 17일(한국시간)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과 함께 기대했던 데뷔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휩쓸며 '대세'로 불린 박성현은 미국 진출과 함께 '슈퍼루키'라는 칭호가 붙었다.

그리고 데뷔 후 14개 대회 만에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화려하게 장식하며 슈퍼루키에서 LPGA 투어 대세로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았다.

남달라, '대세', '슈퍼루키' 이전에 박성현이 처음 골프로 진로를 결정할 때부터 가졌던 애칭이다.

중학교 시절 프로골프 선수의 꿈을 키워나갈 때 자신을 가르쳤던 은사로부터 '남달라'와 '달라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때부터 '남달라'라는 단어에 애착을 갖기 시작했다.

항상 남들과 다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프로 데뷔 초기에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부 투어를 거쳐 2014년 1부 투어 데뷔의 꿈을 이뤘지만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 데뷔한 김효주와 백규정, 전인지 등이 이미 KLPGA 투어 무대를 휩쓸었지만 박성현은 뒤에서 다른 선수들의 우승 순간을 지켜보아만 했다.

그런 박성현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였다. 2015년 6월 '한국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뒤 그해 3승을 쓸어 담았다.

이듬해에는 무려 7승을 휩쓸었다. KLPGA 투어 역대 한 시즌 최다 상금 신기록과 함께 최저타 기록 등도 새로 썼다.

지난해 초청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3위를 했고 예비왕 챔피언십 준우승을 하는 등 비회원 신분임에도 8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수확했다.

상금 순위 40위 이내 들면서 LPGA 투어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초청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LPGA 투어에서 우승하거나 챔피언십 스코어를 거쳐 시드를 확보하는 것

이 한국 선수들의 통상적인 LPGA 투어 진출 방식이었지만 박성현은 미국 진출부터 남달랐다.

그렇게 지난해 11월 미국 진출을 선언한 박성현은 시즌 시작 전부터 LPGA가 가장 주목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다.

큰 체구의 외국 선수들에 뒤지지 않는 호쾌한 장타력과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에 남다른 승부욕까지 박성현의 실력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지난 3월 첫 출전한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3위에 오르며 '슈퍼루키'다운 명성에 걸맞은 데뷔전을 치렀다. 3번째 대회인 KIA 클래식에서도 4위를 하는 등 우승이 머지않아 보였다.

지난 5월 '벌빅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하며 시즌 베스트를 작성한 뒤 최근 4개 대회 연속 10위권에 머물며 숨을 고른 박성현은 14번째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데뷔 첫 우승을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올해의 신인왕 레이스에서 997점으로 2위(359점)와 격차를 더욱 벌리며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상금 90만 달러(약 10억2000만원)를 추가하며 올 시즌 145만636달러



박성현이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리더보드 앞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약 16억4000만원)의 상금을 적립, 상금랭킹 1위 유소연(170만2905달러)에 이어 2위로 강종 뛰어 올랐다.

여기에 최저타수 공동 2위(69.120타), 올해의 선수상 3위 등 데뷔 시

즌부터 남다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진출을 선언하며 1승과 신인왕을 목표로 했다. 첫 우승과 함께 이번이 없는 한 신인왕도 그의 몫이 될 전망이다.

미국 진출 첫해부터 남다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박성현은 이제 LPGA 투어 대세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박성현 시대의 서막이다.

뉴스

트럼프 관심 이끌어낸 최혜진, 韓여자골프 미래는 밝다

US여자오픈 2위...아마추어 신분 6억원 상금 못받아



비록 50년 만의 위업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세계 골프팬의 박수갈채를 이끌어 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국 아마추어 여자골프 선수의 인상적인 활약에 임지를 지켜보았다.

17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최혜진(18·화산여고)을 두고 하는 소리다.

최혜진은 세계 여자골프 최고 규

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에서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친 끝에 2타 차 2위를 했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1라운드부터 당당히 '톱10'에 든 최혜진은 무빙데이 공동 2위에 오르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최종일 평산산(중국)과 챔피언십에서 경쟁하면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으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15번 홀(파5)에서 버디를 낚으며

공동 선두에 올라선 최혜진은 1967년 캐서린 라코스테(프랑스) 이후 50년 만이자 US여자오픈 역사상 두 번째 아마추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18살 아마추어 선수가 메이저 대회 우승에 대한 압박감은 떨쳐내지 못한 채 18번 홀(파3)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리며 더블 보기를 범해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낙심할 법도 한 상황에서 최혜진은 침착하게 남은 경기에 임했다. 관록의 평산산도 우승 문턱에서 있던 실수로 무너진 상황에서 최혜진은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와 함께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베스트 아마추어상을 수상한 경험에 있는 최혜진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달 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초청단선수 용평리조트오픈'에서 5년여 만에 아마추어 챔피언에 등극하며 샷감을 끌어 올렸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전한 US여자오픈에서 세계적인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준우승을 달성하며 단단히 사고를 쳤다.

이 같은 활약에 현장을 찾아 대회를 관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아마추어 선수 수 십년 만에 공동 1위를 하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한국여자골프의 미래이자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최혜진은 국가대표로서 이번 대회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임했다.

대회 기간 가장 주목 받은 선수 중 한 명으로 태극기와 함께 'KOREA'라고 적힌 모자를 쓴 최혜진의 모습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카메라에 잡혔다. 진정한 국위 선양은 최혜진이 했다는 말이 여지없이 나왔다.

대회를 마친 후 공식 인터뷰에서 최혜진은 "16번 홀 티샷이 물에 빠졌을 때 '야,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해왔던 게 이렇게 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실망스러웠다"면서도 "우승 욕심은 거저서 버리고 마무리를 잘 하자"는 생각만 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번 대회는 준우승 상금만도 54만 달러(약 6억1000만원)다. 아마추어 신분인 최혜진은 단 한 푼의 상금도 가져갈 수 없지만 준우승이라는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최혜진은 "상금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여기에 온 목적이 돈이 아니라 경쟁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내고 돌아가게 돼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응원에 대해서도 "벌써 한국에서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내 플레이를 보며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줬다는 데 대해 너무 놀랐고 고맙다"고 덧붙였다.



17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1위 KIA' 김기태 감독·최형우 선수 "팬들과의 가을야구 약속 지키겠다"

KIA 타이거즈를 1위로 이끌고 있는 김기태 감독과 최형우는 17일 "팬들과의 약속인 가을야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이날 오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리그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 감독은 "후반기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며 "전반 것처럼 나와 선수들 스텝 모두가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게임, 한 게임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위치에서 잘 끝내는 것이 목표"라며 "기록에 앞서 현 상태를 잘 유지하다 보면 시즌 전 팬들과의 약속(가을야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게임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상에서 회복한 임기영의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엔트리에서 빠져있던 안치홍

도 내일(18일)부터 게임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반기 타격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코치들이 울스타 휴식기간에도 보강훈련을 실시했다"며 "잘해 줄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최형우는 "본격 여름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이 중요하다. 다른 선수들도 시즌을 치러 왔던 경험을 토대로 각자 몸관리를 잘 할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반기 목표에 대해서는 "기록 욕심은 없다. 이기는데 집중하고 싶다"며 "팀이 이대로 시즌 마무리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최소치 목표인 3월에 100타점을 하고 싶지만 아마 시즌이 끝날 때쯤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포부를 밝혔다.

KIA는 18일부터 20일까지 넥센 히어로즈와 원정경기를 치른 뒤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에서 롯데와 상대한다.

'US여자오픈=한국여자오픈?' 10년새 7차례 정상

태극기 물결 20위 이내 12명 포진...미국 톱10 전무

미국 내셔널 타이틀 'US여자오픈'은 올해도 태극양자 군단의 무대였다.

17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US여자오픈' 우승트로피의 주인공은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었다.

1998년 박세리(39)가 맨발 투혼을 보여주며 한국선수로는 처음으로 US여자오픈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이래 한국 여자골프는 LPGA 무대를 휩쓸다시피 했다.

메이저대회 가운데서도 유독 US여자오픈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2005년 김주연(36)이 깜짝 우승을 차지했고, 박인비(29·KB금융그룹)

는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정상에 올랐다.

2009년 지은희(31·한화), 2011년 유소연(27·메디힐), 2012년 최나연(30·SK텔레콤), 2015년 전인지(23)에 이어 올해 박성현까지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10년 동안 무려 7차례나 정상에 등극했고 2014년 재미동포 미셀 위(27)의 우승을 포함하면 최근 7년 동안 지난해 브리타니 램(미국)의 우승을 제외하곤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우승을 독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태극 양자 군단의 기세에 눌려 2000년 이후 5승에 그치고 있다. 미셀 위의 우승을 더해

6승이다. 같은 기간 한국이 거둔 8승에 한참 못 미친다.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28명의 선수가 출사표를 던진 이번 대회 한국은 1위 박성현과 준우승을 차지한 아마추어 최혜진(18·화산여고), 공동 3위 허미정(28·대방건설), 유소연(27·메디힐)까지 1~3위를 휩쓸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홍강호 이정은(21·토니모리)은 평산산(중국),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와 함께 공동 5위를 하며 KLPGA 투어의 힘을 과시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 2위를 달렸던 양희영(28·PNS)을 비롯해 김세영(24·미래에셋), 이미림(27·NH투자증권)도 나란히 8위에 위치하며 '톱10'에 무려 8명의 한국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역대 US여자오픈 한국인 우승자 명단

- 1998년 박세리(39) 첫 한국인 우승자
- 2005년 김주연(36)
- 2008년 박인비(29·KB금융그룹)
- 2009년 지은희(31·한화)
- 2011년 유소연(27·메디힐)
- 2012년 최나연(30·SK텔레콤)
- 2013년 박인비(29·KB금융그룹)
- 2015년 전인지(23)
- 2017년 박성현(24)